

중학생의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시간 간의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조절 및 매개효과  
검증

김표민, 최원석

인천재능대학교

주 제 분 류 사회복지

주 제 어 자기통제력, 휴대전화 이용 시간, 부모애착, 또래애착

요 약 문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휴대전화 이용시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부모와 또래 애착이 그 사이를 조절 또는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통제력과 부모애착, 또래애착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부모애착은 휴대전화 이용 시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래애착과 휴대전화 이용 시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정도를 조절하지 못했다. 셋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정도를 매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결과에 대한 제언과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접 수 일 : 2018년 10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1월 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9일

생명연구 제50집 2018년 11월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 50, Nov 2018, pp. 291~323  
<https://doi.org/10.17924/solc.2018.50.291>

## 중학생의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시간 간의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조절 및 매개효과 검증

김표민\*, 최원석\*\*  
인천재능대학교

### I. 서론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2017, 여성가족부)<sup>1)</sup>에 의하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5,6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의 매일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76.1%로 나타났다.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한 방법으로는 95%가 스마트폰이라고 답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학

\*교신저자(e-mail: pm1011@jeiu.ac.kr)

\*\*제1저자

1)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17 참조.

생을 대상으로 2018년 3-4월에 실시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sup>2)</sup>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12만 840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초등학교 4학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만 8,937명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2016)<sup>3)</sup>에 의하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휴대전화 보급률은 94%이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81.6%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2011년에 스마트폰 보급률은 38.3%였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81.6%로 증가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생 저학년 45.9%, 고학년 77%, 중학생 95.3%, 고등학생 94.7% 이 휴대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휴대전화 보급률이 상승함과 동시에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초등학교 4학년의 과의존 위험군 인구에서 알 수 있듯 과의존 위험군의 수가 많아지고 있음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급된 스마트폰이 SNS, 모바일 메신저, 게임, 오락, 정보검색, 각종 은행업무 및 사이버머니 기능 등 일상생활의 편의기능과 대인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자연스럽게 점차 길어지게 된다.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점차 익숙해지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져 점차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2012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 조사 결과 청소년(만10-19세)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 때 11.4%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7% 상승한 결과이다. 또한 성인 중독률 9.1% 보다도

2) 여성가족부,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2018 참조.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16 참조.

두 배가량 높은 결과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sup>4)</sup>.

컴퓨터 인터넷의 경우 특히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과다사용을 우려하여 집 거실에 두거나 시간을 통제하거나 과다사용 할 때마다 제재를 가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독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덜하고, 부모 자신들도 컴퓨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므로 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컴퓨터의 경우 컴퓨터가 있는 장소로 가서 컴퓨터를 켜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에 반해 스마트폰은 화면을 한번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하고 소지가 용이하므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중독에 이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휴대전화 중독 정도가 심해질수록 그 사실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윤혜정·권경인, 2011).<sup>5)</sup> 자신이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휴대폰 중독 문제와 관련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휴대전화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정숙, 명신영(2007)<sup>6)</sup>의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중독군이 비중독군에 비해 사용시작시기가 빠르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휴대전화 중독과 관련하여 이를 잘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충동성(impulsiveness)(김현주·황은숙, 2012; 김혜수 등, 2007; 남진열, 2011; 손현경 등, 2006; 김민경, 2013)<sup>7)</sup>과 자기통제감

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3 참조.

5) 윤혜정·권경인, 「휴대전화 중독 청소년들의 특성 및 중독과정 촉진요인」, 『상담학연구』, 제12권 제2호, 2011, 577-598쪽 참조.

6) 이정숙·명신영, 「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 및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4호, 2007, 67-86쪽 참조.

7) 김현주·황은숙, 「또래애착과 충동성이 청소년의 부적절한 휴대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

(self-control)(장혜진, 2002; 김병년 · 최홍일, 2013; 전호선, 2013; 이연미 등, 2009)<sup>8)</sup>이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용자의 가치관이나 판단력, 충동성에 대한 통제감을 키우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정보나 시각적 자극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미숙하므로 그만큼 스마트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럴 경우 중독과 관련 된 특성인 내성(tolerance)의 영향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야 만족하게 되어, 일반이용자에서 과다사용자로 잠재적 고위험군에서 중독에는 중독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한편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변화가 생기며 성숙해 가지만 때로는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게 된다. 이 시기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 중요한데,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경우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인지하고 부정적인 면은 상대적으로 덜 인지하게

『청소년 문화포럼』, 제32권, 2012, 8~38쪽; 김혜수 · 배성만 · 현명호,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환경적 특성 : 공격성, 충동성, 우울, 부모-자녀관계, 주의집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12권 제2호, 2007, 383-393쪽; 남진열, 「대학생의 개인특성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 중독과의 관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4호, 2011, 5-32쪽; 손현경 · 안숙희 · 이해정, 「중학생에서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정도와 사회, 심리적 특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7권 제4호, 2006, 552-562쪽; 김민경, 「청소년자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휴대폰 중독 :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7권 제2호, 2013, 1-18쪽 참조.

8) 장혜진, 「휴대폰 중독적사용 집단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자기개념애착, 자기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병년 · 최홍일,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1호, 2013, 1~25쪽; 전호선, 「대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연미 · 이선정 · 신효식,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환경 변인」,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지』, 제21권 제3호, 2009, 29-43쪽 참조.

되어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대처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모 및 또래 애착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고영남, 2008)<sup>9)</sup>, 비록 휴대전화는 아니지만 인터넷 중독군과 비중독군을 비교한 연구에서 인터넷 비중독군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훨씬 높았다는 결과(김의철 등, 2013)<sup>10)</sup>는 중독 문제에 부모 및 또래 애착 변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중독과 자기통제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들 중 부분적으로 자기통제력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중독에 이르기 전에 휴대전화 이용시간이 중독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기통제력이 휴대전화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살펴봄과 동시에 부모 및 또래관계가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문헌연구

### 1. 자기통제감과 휴대전화 중독

자기통제력(self-control)은 즉각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지

9) 고영남, 「중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2008, 111-131쪽 참조.

10) 김의철 · 박영신 · 탁수연 · 김정희 · 오미선, 「디지털시대의 사회문제 ; 청소년의 사이버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주관적안녕감과 학업성취도: 인터넷 중독인식집단과 비중독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9권 제2호, 2013, 285-318쪽 참조.



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선택과 즉각적으로 만족을 얻기는 어렵지만 이후에 더 큰 가치를 예상할 수 있는 선택이 충돌할 때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반면, 전자는 충동성(impulsiveness)을 의미한다(Kirt and Logue, 1996; Muraven and Baumeister, 2000).<sup>11)</sup> 휴대전화는 컴퓨터와 달리 소지가 용이하고 접근성과 조작의 간편함으로 인하여 자기통제력에 따라 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휴대전화 중독은 그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아직 명확하게 개발되지 않았고(이지연 · 유형근, 2013)<sup>12)</sup>, 그 정의도 명확히 내려지지 않은 채 연구자마다 채택하는 기준의 범위도 다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휴대전화 중독을 인터넷 중독이나 알코올중독, 물질중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진영(2006)은 휴대전화에 의존 상태가 되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과 초조의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강박증상과 내성이 생기며 더 많이 몰입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중단하고자 하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였다.<sup>13)</sup>

휴대전화 중독의 기본 조건은 사용시간이고, 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통제의 문제로 귀결된다.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자기통제력은 휴대전화 중독의 36%를 설명한다고 하였다(박지현 · 박진화, 2017

11) Kirt. J. M and Logue. A. W,1996, "Self-control in adult humans: Effects of counting and timing", *Learning and Motivation*, Vol. 27, 1986, pp. 1-20 참조.

12) 이지연 · 유형근, 「초등학교 고학년의 휴대폰 중독 성향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교육방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3, 29-49쪽 참조.

13) 이진영,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변인과 개인 심리적 변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참조.



).<sup>14)</sup>

이렇듯 휴대전화 중독은 자기통제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즉, 자기 조절 능력이 낮을 때 휴대전화를 무절제하게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피은경, 2011; 장혜진, 2002).<sup>15)</sup> 역의 가설도 성립되어 중독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즉각적인 사용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욕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임애라 · 박기환, 2010; 김은경, 2007; 임경미, 2005).<sup>16)</sup> 자기통제력이 휴대전화 중독을 예측 요소인지 결과 요소인지에 대한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자기통제력은 휴대전화 중독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휴대전화 과몰입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2.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 1) 자기 통제력과 부모 및 또래애착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비행이나 중독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예측변수이다.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조제성 · 조윤오, 2017)<sup>17)</sup> 중독을 일으키는데

14) 박지현 · 박진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자기통제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한국데이터학회지』, 제28권, 제1호, 2017, 185-194쪽 참조.

15) 피은경,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장혜진, 2002 참조.

16) 임애라 · 박기환, 「친애욕구가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의 중재효과」, 『학생생활상담』, 제28권, 2010, 5-24쪽; 김은경,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수준에 따른 자기통제력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임경미,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자기 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참조.

17) 조제성 · 조윤오, 「자기통제와 부모학대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요한 변수(신성만 등, 2018)<sup>18)</sup>가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기통제력과 관련하여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을 함께 검증하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이선행 · 황혜정, 2018; 정혜원 · 정동우, 2012; 조춘범 · 이현, 2018; 김영민 · 임영식, 2014).<sup>19)</sup>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친구지향성이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남현미, 1999)<sup>20)</sup>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 수준이 높았고, 자기 통제 감소율은 줄어들었다(조화진 등, 2010; 홍영수 · 오선영, 2010).<sup>21)</sup>

## 2) 휴대전화 중독과 부모 및 또래애착

청소년의 매체 중독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 부모애착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권현욱 · 임영진, 2017; 김민경, 2012; 김서현 · 김정규, 2016).<sup>22)</sup> 또래애착

범죄심리연구』, 2017, 제13권 제2호, 157-180쪽 참조.

18) 신성만 · 송용수 · 오준성 · 신정미,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및 페이스북 중독 간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018, 제25권 제2호, 371-388쪽 참조.

19) 이선행 · 황혜정, 「중학생의 부모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8, 제25권 제9호, 225-248쪽; 정혜원 · 정동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 제19권 제9호, 1-23쪽; 조춘범 · 이현, 「부모애착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비행에 이르는 경로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018, 제20권 제3호, 97-119쪽; 김영민 · 임영식,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자기통제력의 종단적 변화추이」, 『청소년학연구』, 2014, 제21권 제5호, 303-327쪽 참조.

20) 남현미,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참조.

21) 조화진 · 최바울 · 서영석, 「초기 청소년기 자기통제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부모애착, 교사 애착,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0, 제23권 제4호, 33-53쪽; 홍영수 · 오선영, 「애착과 감독이 청소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010, 제16권 제2호, 319-336쪽 참조.

22) 권현욱 · 임영진,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9호, 2017, 317-337쪽; 김민경, 「청

역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중요한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고종민 등, 2017; 우수정, 2013; 이종하, 2016).<sup>23)</sup>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장석진 등, 2012)<sup>24)</sup>와 또래 애착이 높으면서 친구와 연락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혼자 사용하는 것을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이 높아진다는 결과(김지혜, 2012)<sup>25)</sup>가 있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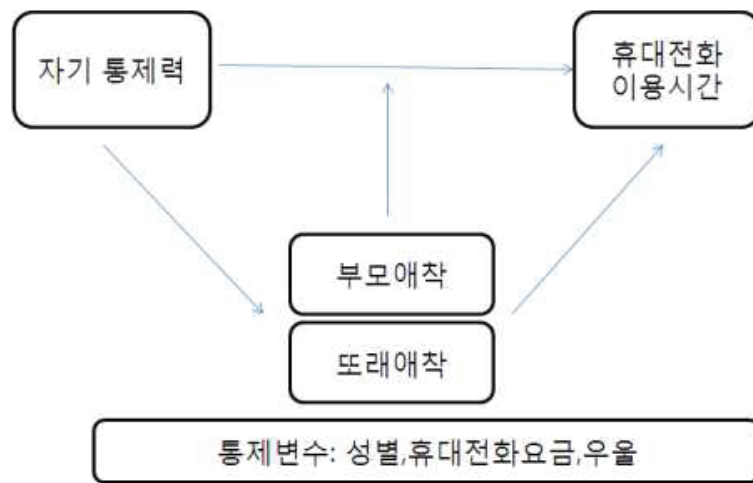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자기통제력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동시에 초기 청소년기에 중요한 대인관계인 부모애착 및 또래 애착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통제력과 부모애착 그리고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이용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둘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자기통제력

---

소년의 심리적 요인, 부모애착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제19권 제4호, 2012, 1-22쪽; 김서현·김정규,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제35권 제1호, 2016, 265-281쪽 참조.

- 23) 고종민·명향란·안권순,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적 기술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2호, 2017, 491-514쪽; 우수정,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제51권 제6호, 2013, 583-590쪽; 이종하,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제16권 제9호, 2016, 433-422쪽 참조.
- 24) 장석진·송소원·조민아, 「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5호, 2012, 161-187쪽 참조.
- 25) 김지혜, 「부모요인, 친구요인, 개인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용도를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3호, 2012, 97-120쪽 참조.

과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매개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모형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자기통제력이 휴대전화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2.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매개할 것이다.

##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 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데이터이다. 『한국청소년 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지 추적조사)과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적조사)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동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함으로서 잠재적 직업선택·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일탈행위·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sup>26)</sup>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이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작성된 결과이다. 이들 중학교 2학년을 특별히 조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고 주변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시기(정혜원·정동우, 2012)<sup>27)</sup>임을 고려할 때 자기통제력이라는 내적 요인 이외에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라는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그 효과를 보는 것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3) 측정도구

#### (1) 종속변인

종속변인으로는 하루 평균 휴대전화 이용시간을 사용하였다. 본 자료에서 문항의 질문은 단일문항으로 ‘귀하의 하루 평균 휴대전화 이용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였고 시간과 분으로 작성된 내용을 분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 (2) 독립변인

한국청소년패널에서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등학교 4학년 패널 1~5차년도 유저가이드』, 2010 참조.

27) 정혜원·정동우, 2012 참조.

총 6문항으로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가지 않는 편이다’로 측정한다. 각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해석의 편의성을 위하여 역문항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55로 나타났다.

### (3) 조절 및 매개변인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조절 및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 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건강한 정서를 갖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부모와 맺은 초기 애착은 비교적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개념인 부모 애착을 조절 및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총 6문항으로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며 신



뢰도(Cronbach's Alpha)는 .896으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은 청소년기의 삶에 있어 부모애착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본 데이터에서는 친한 친구와의 애착이 조사되었다. 총 4문항으로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로 측정된다. 이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10으로 나타났다.

#### (4) 통제변인

선행연구를 통하여 휴대전화 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휴대전화 이용요금, 우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휴대전화 중독과 성별의 영향에서 여학생이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이진령 등, 2014).<sup>28)</sup>

또한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높은 사용자일수록 휴대전화 이용에서 병적 몰입, 생활 장애, 강박적 불안이 높다는 연구결과(우형진, 2007)<sup>29)</sup>와 우울 경향과 휴대전화 중독의 관계에서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의 사용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연구(김정화 · 조춘범, 2017)<sup>30)</sup>에 따라 이 변수들을 통제하였

28) 이진령 · 유정선 · 허균, 「성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6호 제3권, 2014, 1557-1566쪽 참조.

29) 우형진, 「휴대폰 이용자의 자아성향이 휴대폰 중독 구성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2호, 2007, 391-427쪽 참조.

30) 김정화 · 조춘범,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제6권 제2호, 2017, 381-403쪽 참조.

다.

#### 4) 분석방법

자기통제력이 휴대전화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애착 및 또래애착이 조절과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조절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투입할 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변환(mean centering)을 실행하였다(정혜원 · 정동우, 2012).<sup>31)</sup>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조사에 참여한 남학생은 1303명(53.2%), 여학생은 1145명(46.8%)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가구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300~500만원 미만’이 1063명(4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0~300만원 미만’ 663명(27.1%), ‘500~700만원 미만’ 322명(13.1%), ‘700만원 이상’ 302명(12.3%), ‘100만원 미만’ 101명(4.1%) 순이었다.

부모의 학력 중 아버지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1165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이 1147명(43.7%)로 다소 낮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교 졸업

31) 정혜원 · 정동우, 2012 참조.

이상' 156명(5.9%), '중학교 졸업' 110명(4.2%), '초등학교 이하' 42명(1.6%) 순이었다.

가족 구성은 '양친부모와 함께' 지내는 청소년이 2249명(91.8%)으로 월등히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모자 가정' 92명(3.8%), '부자 가정' 71명(2.9%)순이었고, '재혼 가정' 36명(1.5%)이었고, '양친 모두 사망' 한 청소년은 3명(0.1%)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1303	53.2
	여	1145	46.8
	소계	2448	100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101	4.1
	100~300만원 미만	663	27.1
	300~500만원 미만	1063	43.4
	500~700만원 미만	322	13.1
	700만원 이상	302	12.3
	소계	2451	100
부모 학력	초등학교 이하	42	1.6
	중학교	110	4.2
	고등학교	1165	44.5
	대학교	1147	43.7
	대학교 이상	156	5.9
	소계	2620	100
가족 구성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모두 계심	2249	91.8
	친아버지만 계심	71	2.9
	친어머니만 계심	92	3.8
	친아버지와 양어머니 계심	22	0.9

	구분	빈도(명)	퍼센트(%)
	친어머니와 양아버지 계심	14	0.6
	두 분 모두 안 계심(사망)	3	0.1
	소계	2451	100

## 2) 주요변수들의 특성

### (1) 자기통제력, 휴대전화 이용시간, 부모애착, 또래관계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특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자기통제력은 ‘6점~30점’으로 평균 20.95점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용시간은 ‘0분~1440분’으로 평균 136.97분이었다. 부모애착은 ‘6점~30점’으로 평균 21.05점이었고, 또래애착은 ‘8점~30점’으로 평균 21.70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자기통제력, 휴대전화 이용시간, 부모애착, 또래관계의 특성

구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자기통제력	30	6	20.95	4.43
휴대전화이용시간(분)	1440	0	136.97	161.83
부모애착	6	30	21.05	4.78
또래애착	8	30	21.70	2.91

## 3)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검증

아래 <표 3>은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는 모두 .6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분산팽창계수(VIF)는 1.041~1.093으로 나

타났고,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915~.960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이면 공선성이 문제시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데(이희연·노승철2012)<sup>32)</sup>, 이에 해당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표 3〉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1. 자기통제력	1			
2. 휴대전화이용시간	-.113**	1		
3. 부모애착	.227**	-.088**	1	
4. 또래애착	-.045*	.081**	.184**	1

\*  $p < .05$  \*\*  $p < .01$  \*\*\*  $p < .001$

#### 4)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조절효과<sup>33)</sup>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시간을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Model 1, 2, 3을 구성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Model 1에서는 휴대전화 이용 시간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평균 휴대전화 사용요금, 우울을 통제 한 뒤 독립변수에 자기통제력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높은 통제력은 휴대전화 이용 시간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Model 2는 Model 1에 조절변수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것이다.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모두 휴대전화 이용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이용 시간은 유의미하게 낮아짐을 알

32) 이희연·노승철, 《고급통계분석론》, 경기: 법문사, 2012 참조

33) 통계검증과 해석은 정혜원·정동우, 2012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수 있다( $p < .05$ ). 반면 또래애착의 경우 애착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이용 시간은 의미 있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p < .01$ ).

Model 3에서는 자기통제력과 부모애착, 자기통제력과 또래애착 간에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Model 2에 이어서 투입하였다. 그러나 두 개의 상호작용항 모두 휴대전화 이용시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정리하면, 자기통제력과 부모애착, 또래애착은 휴대전화 이용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이지만, 자기통제력이 낮을 경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휴대전화 이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표 4〉 부모애착,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Model		휴대전화 이용 시간		
		Model 1	Model 2	Model 3
		B( $\beta$ )	B( $\beta$ )	B( $\beta$ )
통제 변수	성별	-48.105(-.151) <sup>***</sup>	-46.781(-.147) <sup>***</sup>	-46.281(-.145) <sup>***</sup>
	전화요금	.002(.153) <sup>***</sup>	.002(.142) <sup>***</sup>	.002(.144) <sup>***</sup>
	우울	4.407(.062) <sup>***</sup>	3.312(.046)	3.328(.047)
독립 변수	자기통제	-2.532(-.071) <sup>**</sup>	-2.122(-.059) <sup>*</sup>	-2.336(-.065) <sup>**</sup>
조절 변수	부모애착		-2.006(-.060) <sup>*</sup>	-2.066(-.062) <sup>**</sup>
	또래애착		3.451(.062) <sup>**</sup>	3.761(.067) <sup>**</sup>
상호 작 용 항	자기통제 × 부모애 착			-.023(-.003)
	자기통제 × 또래애			.408(.036)



	착			
상수		128.702***	96.163*	95.427*
Adjusted R <sup>2</sup>		.066***	.070***	.070

\*  $p < .05$  \*\*  $p < .01$  \*\*\*  $p < .001$

### 5)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다음 <표 5>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시간을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Model 1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부모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자기통제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Model 2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함께 자기통제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Model 3에서는 자기통제력, 부모애착,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의 성별, 평균휴대전화 이용요금, 우울을 통제하고 자기통제력, 부모애착, 또래애착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Model 1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부모애착도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p < .001$ ). Model 2에서는 자기통제력에 따른 또래애착을 살펴보았는데,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Model 3에서는 자기통제와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이용시간이 짧았고(각각  $p < .01$ ),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이용시간은 유의미하게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기통제력,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휴

대전화 이용시간이 짧았고,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이용시간은 더 길어졌다. 부모애착은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시간을 매개하였다. 다시 말해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부모와의 애착도 높으며, 높은 부모애착을 매개로 하여 휴대전화 이용시간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자기통제가 또래애착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매개변인으로 투입할 수 있는 조건에 위배되었다(Baron and Kenny, 1986).<sup>34)</sup> 따라서 또래애착은 휴대전화 이용시간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obel test를 통해서도 부모애착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Z=-2.42, p=0.02$ ).

〈표 5〉 부모애착,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Model		부모애착	또래애착	휴대전화이용시간
		Model 1	Model 2	Model 3
		B(β)	B(β)	B(β)
통제 변수	성별	-1.034(-.108)***	-.922(-.160)*	-46.781(-.147)***
	전화 요금	-2.744(-.060)**	1.542(.056)*	.002(.142)***
	우울	-.393(-.183)***	.135(.105)***	3.312(.046)
독립 변수	자기 통제	.180(.167)***	-.003(-.004)	-2.122(-.059)**
	부모 애착			-2.006(-.060)**
	또래			3.451(.062)**

34) Baron, R. M., and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1986, pp. 1173-1183 참조.

	애착			
상수		20.493***	21.244***	96.163**
Adjusted R <sup>2</sup>		.085***	.048***	.070***

\*  $p < .05$  \*\*  $p < .01$  \*\*\*  $p < .001$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통제력이 휴대전화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기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시간을 조절하는지 또는 매개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시간, 부모애착, 또래애착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자기통제력, 부모애착과 휴대전화 이용시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자기통제력과 또래애착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시간을 부모애착, 또래애착이 조절할 것이라는 기각되었는데, 자기통제력과 부모애착, 자기통제력과 또래애착 어떤 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으면 부모애착이나 또래애착과는 관계없이 휴대전화 이용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자기통제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과 휴대폰 중독의 많은 연구에

서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중독 간 부적 관계를 증명하고 있다(이수진 · 문혁준, 2013; 정문경, 2014).<sup>35)</sup>

셋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 시간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자기통제력과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이용 시간이 짧았고,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이용시간이 길어졌다. 아울러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시간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만이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시간 사이를 매개하였다. 자기통제력과 부모애착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기통제력은 부모애착을 매개로 휴대전화 이용시간이 유의미하게 적다는 결과를 말해 준다. 이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경우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최선우 · 김승현, 2015)<sup>36)</sup>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휴대전화 이용시간에 주목하여 자기통제력과 부모애착, 또래애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휴대전화 중독에 대한 명확한 측정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용시간만을 이용한 연구라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또한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횡단적 조사 결과를 이용했다는 점 역시 단편적인 상황만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중독에 기본적인 조건

35) 이수진 · 문혁준, 「중학생의 자기통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13, 제22권 제6호, 587-598쪽; 정문경,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교정복지연구』, 제 34권, 2014, 199-224쪽 참조

36) 최선우 · 김승현,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학교』, 제12권 제3호, 2015, 365-383쪽 참조.

인 휴대전화 이용시간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점은 자기통제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부모 애착은 자기통제력과 휴대전화 이용시간을 매개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부모의 애착과 감독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종단적 연구에서도 현시점의 부모애착 수준이 미래의 자기통제력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홍영수 · 오선영, 2010; 김영민 · 임영식, 2014)<sup>37)</sup>와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통하여 자기통제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애착은 휴대전화 과의존에 대한 예방 기제로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또래애착은 휴대전화 이용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이용시간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기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집단 프로그램이나 학교 차원의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37) 홍영수 · 오선영, 「애착과 감독이 청소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0, 319-336쪽. ; 김영민 · 임영식,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자기통제력의 종단적 변화추이: 부모, 또래, 교사애착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5호, 2014, 303-327쪽 참조.

## 참고문헌

- 고영남, 「중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2008.
- 고종민 · 명향란 · 안권순,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적 기술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2호, 2017.
- 권현욱 · 임영진,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9호, 2017.
- 김민경,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부모애착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제19권 제4호, 2012.
- 김민경, 「청소년자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휴대폰 중독 :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7권 제2호, 2013.
- 김병년 · 최홍일,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1호, 2013.
- 김서현 · 김정규,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제35권 제1호, 2016.
- 김영민 · 임영식,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자기통제력의 종단적 변화추이」,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



5호. 2014.

김은경,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수준에 따른 자기통제력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의철 · 박영신 · 탁수연 · 김정희 · 오미선, 「디지털시대의 사회문제 ; 청소년의 사이버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주관적안녕감과 학업성취도: 인터넷 중독인식집단과 비중독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9권 제2호, 2013.

김정화 · 조준범,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제6권 제2호, 2017.

김지혜, 「부모요인, 친구요인, 개인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용도를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3호, 2012.

김현주 · 황은숙, 「또래애착과 충동성이 청소년의 부적절한 휴대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제32권, 2012.

김혜수 · 배성만 · 현명호,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환경적 특성 : 공격성, 충동성, 우울, 부모-자녀관계, 주의집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2권 제2호, 2007.

남진열, 「대학생의 개인특성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 중독과의 관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4호, 2011.

남현미,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

-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지현 · 박진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불안, 대학생활적응, 자기통제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한국데이터학회지』, 제28권, 제1호, 2017.
- 손현경 · 안숙희 · 이해정, 「중학생에서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 정도와 사회,심리적 특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7권 제4호, 2006.
- 신성만 · 송용수 · 오준성 · 신정미,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기 통제력 및 페이스북 중독 간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018, 제25권 제2호.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17.
- 여성가족부,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2018.
- 우수정,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제51권 제6호, 2013.
- 우형진, 「휴대폰 이용자의 자아성향이 휴대폰 중독 구성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2호, 2007.
- 윤혜정 · 권경인, 「휴대전화 중독 청소년들의 특성 및 중독과정 촉진요인」, 『상담학연구』, 제12권 제2호, 2011.
- 이선행 · 황혜정, 「중학생의 부모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5권 제9호, 2018.

- 이수진 · 문혁준, 「중학생의 자기통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 제6호, 2013.
- 이연미 · 이선정 · 신호식,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환경 변인」,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지』, 제21권 제3호, 2009.
- 이정숙 · 명신영, 「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 및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4호, 2007.
- 이종하,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제16권 제9호, 2016.
- 이지연 · 유형근, 「초등학교 고학년의 휴대폰 중독 성향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교육방법연구』, 제25권 제1호.
- 이진령 · 유정선 · 허균, 「성별,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6호 제3권, 2014.
- 이진영,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변인과 개인 심리적 변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희연 · 노승철, 《고급통계분석론》, 법문사, 2012.
- 임경미,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자기 효능감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임애라 · 박기환, 「친애육구가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의 중재효과」, 『학생생활상담』, 제28권, 2010.
- 장석진 · 송소원 · 조민아, 「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5호, 2012.
- 장혜진, 「휴대폰 중독적사용 집단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자기개념애착, 자기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전호선, 「대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정문경,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교정복지연구』, 제34권, 2014.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16.
- 정혜원 · 정동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9호, 2012.
- 조제성 · 조윤오, 「자기통제와 부모학대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제2호, 2017.
- 조춘범 · 이현, 「부모애착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비행에 이르는 경로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20권 제3호, 2018.
- 조화진 · 최바울 · 서영석, 「초기 청소년기 자기통제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부모애착, 교사애착, 자기존중감과의 관

- 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3권 제4호, 2010.
- 최선우·김승현,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2권 제3호, 2015.
- 피은경,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등학교 4학년 패널 1~5차년도 유저가이드』, 2010.
- 홍영수 · 오선영, 「애착과 감독이 청소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0.
- Baron, R. M., and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1986.
- Kirt. J. M and Logue. A. W, “Self-control in adult humans: Effects of counting and timing”, *Learning and Motivation*, Vol. 27, 1986.
- Muraven, M. and R. F. Baumeister, “Self-regulation and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Does self-control resemble at muscle?”, *Psychological Bulletin*. Vol. 26, 2000.
- <동아일보>,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 첫 세계 1위」,  
<http://news.donga.com/3/all/20130626/56120821/1>,  
2013.06.26. (검색일: 2018.10.01.)

## **A Study on Moderation of parents'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and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on Relationship between Self-control and Cell Phone Time of Middle School Students**

Kim, Pyomin

(JEI Univ.)

Choi, Wonseok

(JEI Univ.)

This research examined if self-control of youths in early stage makes an effect on the degree of cell phone using time and verified i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shows moderation or mediation among th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self-control, parents'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Parents' attachment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cell phone using time.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eer attachment and cell phone using time. Second, parents'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couldn't moderate self-control and cell phone using degree. Third, parents'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mediated self-control and cell phone using degree. Based on them, suggestion for results was given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social welfare field were suggested.

**Subject :** Social Welfare

**Key words :** self-control, cell phone using time, parents' attachment, peer attachment